

미제와 승냥이

- ‘조국해방전쟁’기의 반미관에 대한 연구

남 원 진
(경원대학교)

1. ‘미제’와 ‘승냥이’

북조선에서 ‘미제’로 명명되는 미국의 표상은 어떤 것일까? 과연 ‘미제국 주의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 즉 ‘미제 승냥이놈’일까?

신천대학살사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황해남도 신천군에 기여든 미제승냥이놈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감행한 대학살만행사건. (……) 놈들은 신천군에서만 하여도 50여일동안의 강점기간에 군내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명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인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 10월중순 신천땅에 기여든 첫날부터 살인장교놈의 지휘밑에 우리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어린이들, 로인들, 부녀자들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방법을 다 써서 학살하였다. 특히 신천군 문천면 운남리같은데서는 리내 전체 주민의 68%에 해당하는 6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이 학살되었으며 그가운데는 5살미만의 젖먹이들과 6~15살되는 소년들, 로인들이 많이 섞여있었다. 또 10월 18일에는 하루동안에만

도 미제승냥이놈들이 3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는데 이때 놈들은 그들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렀으며 항거하여나오는 사람들은 총창으로 찢러죽이고 나머지사람들은 생매장하여죽이었다. 신천군 원암리 방나무골에서 있는 신천의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놈들의 집단적학살만행은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면모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었다. 놈들은 그곳에 있는 두개의 화약창고에 400여명의 어머니들과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떼낸 104명의 어린이들을 따로따로 가두어놓고 그들에게 물한모금 주지 않고 고통속에 시달리게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창고안에 불을 질러 그들을 전부 태워죽였다. 또한 시원저수지 수문에다가는 1,600명의 부녀자들을 몇사람씩 묶고 거기에 무거운 돌을 달아 빠뜨려죽였으며 살아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탄을 퍼부어죽이었다. 이외에도 미제야수들은 애국적인민들을 체포하여 땅크로 깔아죽이고 장작불에 태워죽이며 산 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죽이는 등 온갖 잔인하고 포악한 야수적만행을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한편 미제 날강도놈들은 인민들의 재산과 금품을 닥치는대로 약탈과괴하는 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¹⁾

북조선에서는 해방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재해석하려는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재구성된 미국의 표상이 재발견된다. 이런 미국의 표상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극단적 반미관으로 굳건하게 정착되어 현재까지도 활용된다. 위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역사사전』에서 보듯, 극단적 반미관으로 재구성된 미국의 표상은 6·25전쟁 때의 ‘신천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기술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기술에 따르면,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인 ‘미제 침략자들’은 1950년 10월 중순 이후 50여 일 동안 신천군을 강점하면서 군내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여 명을 ‘구덩이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고 총창으로 찢러 죽이고 생매장하는’ 등의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고 적고 있다.²⁾ 그러나 구월산 중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역사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번각발행: 학우서방, 1973), 184~185면.

2) 이런 북조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신천양민학살사건’

심으로 활동했던 우익 청년단체들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학살의 주체로 설정한 반미관은 사실과 과장을 뒤섞거나 허구를 가미하여 부정적 타자의 표상을 덧씌우는 이미지의 변형을 통해서 ‘미제’의 표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미제의 표상은 북조선 내부의 대미 적대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북조선 체제의 우월성을 창출하고 합리화하는 근거로 지속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면 남북 문학사에서는 미국의 표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정리했을까?

원수들에 대한 중요—이것은 전쟁 시기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의 하나다. (……)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제 침략군과 리 승만 괴뢰도당들은 각지에서 자기의 야수적인 비인간성과 유사 이래 있어 보지 못한 잔인한 야만성을 스스로 폭로시켰다. (……) 이 인간—짐승들의 천인 공노할 만행과 그의 야수적 본질을 우리 작가들은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폭로하였다. / 한 설야의 단편 소설 《승냥이》(1951년)는 이러한 제마에 바친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다. 작가는 여기서 수십년 전에 조선에 와서 《하느님》의 아들로 자처하면서 온갖 흉악한 만행을 다한 미국 선교사와 그를 중심으로 한 미제 야만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직접 오늘의 문제에 해답하였다. (……) 작가 리 북명은 단편소설 《악마》(1951년)에서 적의 일시적 강점 지구에서 버려진 처절한 사실에 취재하여 미제의 야수적인 만행을 폭로 규탄하였으며 인민들의 투쟁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보여진 원수놈들의 만행은 문'자 그대로 악마이다.³⁾

의 주역들은 대부분 구월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무장 우익 청년단체들이었다. 당시 ‘봉기’에 참여했던 우익 청년단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봉기 날짜를 10월 13일로 증언하고 있지만, 이들 스스로 미군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언하는 경우는 없었고, ‘봉기’ 참가자들이 미군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졌다는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극우 청년단체 회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신천 학살’의 그 규모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였고, 방법 또한 잔인하기 그지없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이신철, 『6·25 남북전쟁시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역사와 현실』 54, 2004. 12, 151-165면)

-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237-239면.

미국 제국주의는 악의 근원이었다. 남한 ‘괴뢰군’은 매편세력의 주구이며 미제의 용병에 지나지 않았다. 미군은 승냥이, 혹은 악귀, ‘낮짜 흰 해적’으로 불리었다. 그들은 38 이남을 강점한 것도 모자라 남의 나라를 쳐들어 온 날강도이자, 히틀러를 이어 인종 말살을 획책하는 광기에 찬 인종주의 자들로 묘사되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흉포한 본성에서 나오는 잔인성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들의 침략이 오늘날의 일이나눔을 부각하는 일 역시 빼놓지 말아야 했다. (……) 그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였으므로, 이 싸움은 ‘관가리 싸움’이었다. / 리복명은 단편소설 「악마」(1951)에서 악몽의 장면을 그렸다. (……) 한설야의 단편 「승냥이」(1951)는 미국인의 본성을 탐구한 수작으로 평가되었다.⁴⁾

북조선 과학원에서 공동 집필한 『조선 문학 통사(하)』에서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확고해진 미국에 대한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학사에서는 미국을 ‘미제’로 명명하면서 ‘애국적 영웅주의 빠포스’와 함께 ‘원수들에 대한 증오’를 ‘북조선 문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사상의 하나’라고 규정한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미제 침략군’과 ‘이승만 괴뢰도당’의 ‘야수적인 비인간성’과 ‘잔인한 야만성’을 확인했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남한에서 기술된 『북한문학사』에서도 ‘미국 제국주의’는 ‘악의 근원’이며 ‘남한 괴뢰군’은 ‘매편세력의 주구’이며 ‘미제의 용병’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과연 북조선에서 미국을 이렇게만 인식했던 것일까?

여하튼, 북조선의 반미관은 사실과 과장을 뒤섞거나 허구를 가미하여 부정적 타자의 표상을 덧씌우는 이미지의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임은 자명하다. ‘미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표상은 해방기를 거치면서 북조선의 지도부의 논리적 조작을 통해 굴절되고 재구성된 것임은 분명하다.⁵⁾ 따라서 이 글에서

4) 신형가오성호, 『북한문학사』, 서울: 평민사, 2000, 154~155면.

5) 미국에 대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평론이나 논문은 있지만, 현재 북조선 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의 재구성된 표상을 다룬 논문은 없는 듯하다. (김윤식, 「북한 문학의 세가지 직접성 - 한설야의 「혈로」 「모자」 「승냥이」 분석」, 『예술과 비평』 21, 1990. 가을;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과 미군·중국군의 형상화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0, 2003. 6;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전쟁소설의 특성 - 한국군과 북한군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3. 12;

는 해방기를 거쳐 변형된 북조선 문학의 대미관의 실상⁶⁾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국해방전쟁’기의 한설야와 리북명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조국해방전쟁’기의 미국에 대한 인식

해방기 북조선에서 미국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해방 직후 미국은 소련의 개입이 있는 후, 조선 해방에 기여한 민주주의 국가로 선언되었는데, 북조선 지도부는 해방에 대한 소련의 기여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1946년 들어 미소 관계가 갈등상황에 봉착하고,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북조선의 대미관도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후의 신중한 대미관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후, 1947년 말부터 극단적 반미관으로 전환되었다. 조선 해방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마저 부인하고 있는 1947년 말의 극단적 반미관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고착되면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⁷⁾ 그러면 해방기 재구성된 미국관은 6·25전쟁기에는 어떻게 드러났을까?

매국역적 리승만 괴뢰정부의 군대는 6월25일에 삼팔선 전역을 걸쳐 삼팔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진공을 개시하였습니다. (……) 리승만매국역도들은 『분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있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따라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수인 일본군벌과 결탁하는길에까지 들어서는것을 주저하

김중희, 「북한문학에 나타난 6·25동란」, 『한민족어문학』 49, 2006. 12; 신영덕, 「전쟁과 문학 -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에 나타난 외국인과 여성」, 『전쟁과 문학』 2, 2007. 여름; 김춘선, 「염상섭의 『취우』와 한설야의 『대동강』 비교」, 『현대문학의 연구』 38, 2009. 6)

6) 남원진, 「미국의 두 표상 - 해방기 북조선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 문예비평연구』 36, 2011. 12.

7) 이주철, 「북한의 정부 수립과 열강에 대한 인식 - 『정로』, 『로동신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총』 67, 2008. 9, 47~48면; 김재웅, 「북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된 미국의 상(1945~1950)」, 『한국사학보』 37, 2009. 11, 339면.

지않았습니다. 리승만역도들은 자기들의 사리 탐욕과 지배를 유지하려고 우리조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아세아에있어서의 그들의 군사적 전략기지로 미국독점 자본가들의 리윤의원천지로만들고있으며 우리조국남반부의 경제를 미독점자본가들의 지배에 맡겼습니다.⁸⁾

1950년 6월 26일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에서, 김일성은 ‘이승만 괴뢰정부의 군대’가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개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할 것을 호소한다. 역사적 사실과 달리, 김일성은 남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반격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이 스탈린이 요구한 것을 고려하여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한다. 스탈린의 생각으로는 소련이 지지하여 북조선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되었다.⁹⁾ 그런데 6·25전쟁과 관련된 위의 방송 연설에서, 김일성은 해방기에 정착된 ‘제국주의론’을 활용하여 ‘애국적 충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친다. 김일성의 연설에 따르면, 이승만이 ‘미제’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의 철천지의 원수인 ‘일본 군벌’과 결탁하는 한편, 자신의 사리탐욕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 ‘군사적 전략기지’로 만들며, 조선의 경제를 ‘미독점자본가들’의 지배에 맡겼다는 것이다.

8) 김일성,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 『인민』 5-7, 1950. 7, 3~4면;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한 방송연설(一九五〇年 六月 二十六日)」, 『김일성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1~4면.

9) 和田春樹, 『북조선』, 서동만·남기정(역), 서울: 돌베개, 2002, 100면. 스탈린은 6·25전쟁 기간동안 소련의 공개적 개입 금지, 즉 철저한 비밀 개입을 고수했다. 이런 방침의 목적은 무엇보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는데 있었다. 미국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소련은 미소의 군사적 충돌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고, 심각한 피해를 낳은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대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6·25전쟁은 소련의 개입이 절대 드러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었다. 당 정치국원들조차 전쟁 정책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스탈린의 독단성 이외에도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63, 2007. 6, 109면; 기광서, 「한국전쟁기 소련의 유엔 불출석과 ‘드러나지 않은’ 개입」, 『중소연구』 34-3, 2010. 가을, 161면)

결국 김일성의 연설은 ‘미제의 하수인’인 ‘이승만 역도들’이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며, 조선 인민을 ‘미제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김일성이 펼치는 논리란 해방기에 재구성된 ‘미제국주의론’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¹⁰⁾ 김일성은 해방기에 일제의 만행을 미제에 덧씌우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제국주의론을 활용하여, 조선 인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애국적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워야’¹¹⁾함을 역설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소설, 연극, 영화, 수필, 만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을 다 동원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라는 것을 철저히 폭로하여야 하겠습니다.¹²⁾

또한 1950년 12월 24일 작가·예술인·과학자들과 한 담화에서, 김일성은 6·25 전쟁에서 있었던 ‘사실들만을 폭로할 것이 아니라 미제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본성과 미제국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저지른 야수적 만행을 철저히 폭로’하여,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인민들을 원수를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에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이며 ‘가장 교활하고 포악하고 추악한 현대의 야만들’¹³⁾이라고, 적대적 타자에 대해 부정적 표상

10) 북조선에서는 미국의 침략정책이 다름 아닌 미국식 세계주의를 추종한 각국 부르주아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대리 수행되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조선의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한 이승만과 한민당 등의 우익 진영이야말로 지주와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력을 확립하고자 미국에 긴밀히 결탁된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북조선 지식인들은 미국이 이들을 매개로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김재웅, 앞의 글, 316면)

11) 김일성,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7면;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한 방송연설(一九五〇년 六월 二十六일)」, 9면.

12) 김일성,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작가, 예술인, 과학자들과 한 담화 1950년 12월 24일」, 『김일성저작집(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27면.

13) 위의 글, 225면.

을 덧씌운다. 이는 적대적 타자에 입혀진 부정적 표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부의 애국심을 유발하려는 내셔널리즘의 작동 방식이다. 이런 해방기에 만들어진 적대적 타자인 미제의 부정적 표상을 이용하여 내셔널리즘을 작동시키는 방식은 6·25전쟁기에 창작된 북조선 문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도적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사람 지혜 부족합니다. 당신은 조선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염돼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미국사람의 지혜와 용기와 도덕이 필요합니다』¹⁴⁾

『너이들 용서를 누가 원한다더냐 너이들이 또 나같이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종으로 부리고 맘대로 죽이자고 그따위 수작이지만 안된다 안돼』
(……) 『그러나 두고 보아라. 조선사람 다 죽지않았다』¹⁵⁾

한설야의 「승냥이」는 1950년 12월 김일성의 담화에 의거해서, ‘가면과 위선으로 악행을 감행하는 미국인’을 드러내는 한편, ‘조선인민의 불굴한 정신’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해진다.¹⁶⁾ 일제 시대 미국 선교사 집의 잡역부로 일하는 수길 어머니와 아들 수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수길은 젓소 외양간 뒤쪽 웅덩이에서 커다란 고무공 하나를 얻는데, 고무공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다가 선교사의 아들인 시몬에게 공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심하게 맞는다. 시몬에게 맞은 수길은 고열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수길 어머니는 남편과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동건의 권의로 류 의사에게 맡기려하는데, 선교사 부인이 찾아와 교회에서 경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를 권한다. 선교사 부인은 교회 병원 원장 맥 부인을 만나서 ‘미국 사람의 지혜와 용기와 도덕’이 필요함을 강변하며, ‘미국사람의 지혜’를 짜내어 수길을 전염병자로 가장하여 죽게 만든다. 수길의 죽음 후, 수길 어머니는 선교사 집에 쳐들어가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시몬의 연락으로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수길 어머니는 붙잡혀 간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조선 사람 다 죽지 않았다’

14) 韓雪野, 「승냥이」, 『문학예술』 4-1, 1951. 4, 23면.

15) 위의 글, 34면.

16) 한설야, 「「승냥이」를 쓰기까지」, 『청년생활』, 1951. 10, 79-80면.

고 잡혀가는 수길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로, 이 작품은 마무리된다.

『왜놈들만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더니 미국놈도……』¹⁷⁾

후치날같은 매부리코 끝이 승물스럽게 웃입술을 덮은 늙은 승냥이와, 방장 먹자귀를 삼킨 구렁이 뱃대기처럼 젓가슴이 불쑥 내밀린 암여우와 지금 바로 꺾대기를 벗고 나오는 독사 대구리처럼 독기에 반들거리는 매끈한 이리새끼…¹⁸⁾

『좋습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덕, 미국사람을 위해서는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탄환을 주십니다. 비행기와 군함을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가 든 성경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까. 의사가 잡은 주사기를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¹⁹⁾

그런데 ‘왜놈들만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더니 미국놈도’ 마찬가지로라는 계득 어머니의 말에서나, 선교사와 그의 부인과 아들을 ‘승냥이떼’와 같은 짐승으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 보듯, 한설야는 해방기 일제에 썩어진 부정적 표상을 미제에 덧씌워 극단적인 반미관을 만든다. 결국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와 군함뿐만 아니라 성경과 주사기도 필요함’을 역설하는 선교사 부인의 말을 통해서, 한설야는 세계제패에 미쳐 날뛰는 미국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극단적인 ‘미제국주의론’을 펼친다.

그러면 한설야의 「승냥이」처럼 극단적인 미국인 선교사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해방 직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인들의 친일 문제에 맞추어졌는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되고 난 후, 194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미관은 기독교를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선 기독교가 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재발견되면서 미국과 기독교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 더욱이 기독교에 종교적 기반을 둔

17) 韓雪野, 「승냥이」, 10면.

18) 위의 글, 32면.

19) 위의 글, 23면.

조선민주당이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여 드러난 반공친미적 성향은 당대 조선인들에게 미국·기독교·조선민주당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만들어 주었다. 조선민주당의 개조 이후 대미 비판은, 특히 기독교 비판과 강하게 접목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미국과 기독교의 표상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구한말 선교사야말로 미국과 기독교 비판의 상징적 주제로 활용될 수 있었다. 여기서 극단적 반미관의 정립은 조미관계사의 재해석을 수반했다. 북조선 지식인들은 과거 미국의 직접적 침략행위보다 러일전쟁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 일본의 조선강점에 기여한 미국의 협력적 역할에 더 주목했다. 이런 협력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시적 전술로 이해되었다.²⁰⁾ 이런 기독교 비판을 수반한 극단적인 반미관은 6·25전쟁동안에 있었던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민간인 학살의 경험이 첨가되면서 증폭된다. 따라서 한설야의 「승냥이」는 미국인 선교사의 ‘널리 알려진 사실’²¹⁾을 재발견하는 한편 6·25전쟁 당시의 악행이 증폭되면서 ‘미국인’은 ‘승냥이’와 동일하다는 극단적 반미관을 창출한 것이다.

평양 시내에 건물이란 건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모두 부서져서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다.

20) 김재용, 앞의 글, 340면.

21) 미국인 선교사의 악행은 한설야나 김일성 등의 여러 글에서 확인된다. “일찌기 미국선교사는 자기 사과밭에서 사과하나를 주어먹은 조선의 어린이를 불로 이마를 지졌고 또 인두로 손을 지졌다. / 『이손에 악마가붙었다』고 하면서 손을 지졌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손을 인두로 지지는 자의 머리속에 악마가 백여있는것이다. / 이 악마와 미치광이의 형제인 미 제국주의자들이 해방후 남조선에 들어와서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야만적인 실례는 너무도 많다.”(한설야, 「히틀러후계자 미제강도들은 우리농촌과 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도살자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야수적만행에 복쫓하리라』, 평양: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출판년도 불명(1950 - 추정), 9면) “지나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여들었던 미제승냥이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서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치떨리는 일입니다까. 이것이 바로 미제침략자들의 승냥이본성입니다.”(김일성,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앞의 책, 226면)

더구나 평양시민들은 오갈 데가 없이 부서진 집 속에 토굴 비슷하게 파 놓고 살아가는데 마치 원시인들 같았다. 도시전체가 완전히 빈민소굴이요 난민소굴이었다. 식량도 동이 날대로 나버렸고, 비바람을 피할 천막이나 움집조차도 없었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하나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죽어 나자빠진 시체가 더 흔했다. 아니 살아 있는 사람도 반쯤은 죽어 있었다.

말을 들어보니 미군기는 평양시민이야 죽든 말든 야간마다 무차별 흉단 폭격을 가해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 해도……. 평양을 초토화시키려고 작정했음이 분명하다.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 미군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가라도 야간에 불빛만 비치면 굶주린 개가 고기를 본 듯이 공격했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²²⁾

6·25전쟁동안 미군은 북조선 지역에서 무차별 폭격과 민간인 학살을 행했다. 위의 김진계의 당시 경험에 대한 진술에서 보듯,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한 북조선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²³⁾ 한 미국 연구자의 지적에 따르면, 1950년 초순 이후 맥아더는 북조선의 수천 평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 내의 ‘모든 시설물, 공장, 시가지, 마을’을 폭격하여 전선과 중국 국경선 사이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라고 명령했다. 11월 25일까지 ‘압록강과 그 이남의 적 최전방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북서지역이 대충 불타버렸다.’ 이제

22) 김진계(구술), 김용교(기록), 『조국(상)』(‘북조선 인민’의 수기), 서울: 현장문학사, 1990, 182면.

23)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과 기총소사는 ‘학살’이라기보다는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비무장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탄과 총탄 세례를 퍼부은 것을 두고 학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군측은 사실상 조선인 중에서 좌익과 우익을 전혀 구별할 수 없었을 뿐더러, 영문도 모르고 투입된 전쟁에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몰라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미군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데는 미군들이 조선인들을 인종적으로 멸시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거나 남녀를 불문하고 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6(개정판), 298~299면)

그 지역은 ‘초토화된 폐허’가 된 것이었다. 또한 미군은 모든 조선인(흰 파자마)을 잠재적으로 적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민간인을 죽였다.²⁴⁾ 이런 6·25전쟁의 한 참상을 연출한 리복명의 「악마」에서 볼 수 있듯,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구경!」 그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두번 다시 있을수 없는 미국식 구경이었다.

쇠줄로 코를 썬 박침지가 거부기처럼 네발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군중들이 입술을 개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침지의 목덜미 량편에 하나씩 달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박승갑의 머리와 삼단같은 머리칼을 풀어헤친 며느리의 머리가 쇠줄에 끼여 달려있고 죽은 손자의 발간 몸뚱이를 업고 있지 않는가! 악한들은 볼속에서 뛰어나 온 며느리를 잡아서 발가 벗겨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하였으나 역시 아무 것도 얻지 못한채 총살을 시키고 어린 것은 구멍호란 놈이 발로 밟아죽였던 것이다.²⁵⁾

리복명의 단편소설 「악마」는 미군과 국군에게 점령당한 후방 지대에 일어난 ‘만행’의 현장을 보여준다. 미군에 의해 점령된 ‘가무사리’에서, 미군 오장 ‘작크’는 약탈과 살인을 일삼고 부녀자를 폭행하며, ‘국군’은 그의 악행에 충실한 방조자 역할을 한다. 그들은 아버지인 박 침지에게 인민위원장인 아들 승갑의 머리를 잘라 ‘선물’하는가 하면 급기야 마을 사람들을 구경하도록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죽은 아들과 며느리의 머리를 쇠줄로 꿰어 네발걸음으로 걷도록 하는 섬뜩한 장면을 연출한다. 과연 이런 섬뜩한 장면 설정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미군군대가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들어온 바로 그 날에 우말재의 가

24) Jon Halliday, Bruce Cummings, *Korea :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Press, 1988, pp. 85~115;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차성수·양동주(역), 서울: 태암, 1989, 87~117면.

25) 李北鳴, 「惡魔」, 『문학예술』 4-1, 1951. 4, 62~63면.

죽에 대해서 특별히 끔찍한 범죄가 감행되었다. (……)

미국인들은 증인의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꿰어 뚫었다. 그들은 방에 있던 노동표창장을 그의 이마에 못으로서 박아붙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고문했다. 5세로부터 25세까지 이르는 11명의 우말재 가족의 자녀들은 죽석에서 총살되었다.

우말재의 머느리는 미국장병들이 그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나무에 비껴어맨 다음 젖을 베고 국부애다 막대기를 박고 기름을 부은 다음 불을 질렀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여성에게 기름을 붓고 산채로 태웠다. 이 범행에는 약 20여명의 미국병정이 참여하였다.

봉산군 영천면 미곡리에서 1950년 12월 5일 박용녀는 3명의 미국병정들에게 강간당하였다. 같은 동네에서 36세 되는 여성은 같은 날 4명의 미국병정들에게 강간당하였다.²⁶⁾

6·25전쟁동안 미군의 학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1951년 국제민주여성연맹과 1952년 국제민주법률가협회의 조사단이 북조선에 파견되었다. 1952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북조선에 체재하며 조사한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에 제시된 위의 증언을 참고할 때, 북조선 지역 주민에 대한 미국의 민간인 학살 행위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의 민간인 학살의 단면을 다룬 리복명의 「악마」는 해방기의 제국주의론에 따라 만들어진 반미관에 의거해서 덧씌워진 미군과 그 하수인으로 그린 국군이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작품은 모든 민간인 학살의 주체로 미군을 설정하고 그 하수인으로 국군을 그리는, 만들어진 제국주의론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전쟁 이후도 이런 ‘흉악한’ 악마로 미군과 그 방조자인 국군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조선 문학의 하나의 정석이 된다. 결국 해방기 ‘일제’에 입혔던 것을 덧씌워져 만들어진 ‘미제’의 표상은 6·25전쟁동안 있었던 학살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증폭된다.

26)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편),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서울: 청사, 1989, 187면.

우리 작가들은 미제침략자들을 교활한자들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할뿐만 아니라 가장 포악하며 가장 추악한 야만적인 존재라는것을 잊어버리는 상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게하였고 우리인민을 대중적으로 학살하고있는 미제놈들이 그 얼마나한 신사적인 교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자기의 추악 무도한 비인간성과 유사이래 있어보지못한 잔인한 야만성을 스스로 폭로시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써 세계인민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보라는듯이 자랑하는 것입니다.²⁷⁾

한설야나 리복명의 작품처럼, 왜 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형상화했을까? 김일성이 1951년 작가들에게 한 담화는 6·25전쟁 시기 미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1951년 6월 30일 중견작가들과의 접견 석상에서 한 김일성의 담화 「전체작가예술가들에게」는 전쟁 기간에 제기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담화에서는 ㉠ 인민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다룬 작품, ㉡ 민족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표현한 작품, ㉢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표현하고 묘사한 작품, ㉣ 많은 공화국 영웅을 묘사한 작품, ㉤ 임시적 강점에 들었던 후방 지대에서의 혁혁한 투쟁과 용감무쌍한 영웅성을 표현한 작품, ㉥ 인민과 군대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작품, ㉦ 적에 대한 증오심을 옹기 표현한 작품, ㉧ 인민 문학 중에서 민요, 구전문학을 연구할 것, ㉨ 창작사업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철저하게 전개할 것, ㉩ 세계 선진문화를 섭취할 것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 ‘적에 대한 증오심을 옹기 표현한 작품’(㉦)을 지적한 부분이다.

27) 김일성, 『김일성장군의 격려의 말씀(전체작가예술가들에게)』, 평양: 문화선전성, 1951, 9면. (「全體作家藝術家들에게주신金日成將軍의激勵의말씀」, 『문학예술』 4-3, 1951. 6, 8면;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 1951년 6월 30일 중견 작가들과의 접견 석상에서의 담화」, 『김일성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295면.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작가, 예술가들과의 담화 1951년 6월 30일」, 『김일성저작집(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03~404면)

『그런데 지금 미군은 도처에서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아니 막 몰아다가 학살하고 있대요. 벌써 여러 날 전에 들어 온 정보지만, 황해도 신천군에서만 벌써 삼만여명이 학살되었대요. 미군은 신천군에 들어오던 그 이튿날에 반역자들과 얽려서 정무원들과 열성 농민들과, 로동당원 가족들, 백여명을 잡아다가 옷을 벗겨 방공 구덩이에 차넣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렀대요. 그래 처음은 그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야단이더니, 나중에 「김장군 만세!」 소리와 「공화국 만세!」 소리가 들려나 오더라요.』²⁸⁾

해주에 기여든 미국놈들과 ‘국군’놈들은 인민의 재물을 닥치는대로 강탈하며 부녀자들을 강제로 능욕할 뿐만 아니라 네거리에 맨들어 세운 교수대에 애국자들을 매달고 있으며 무고한 인민들과 심지어는 로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배에 실어서 해주 앞바다에 내다가 바다 속에 처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난 그는 (……) 그러나 양키-놈들과 그 앞잡이들의 야수 보다는 더한 만행은 비단 해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천에서는 수많은 남녀 로소들을 방공호에다 강제로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린 후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이 외에도 옥회는 왜놈이나 독일놈보다도 더한 미국놈들의 용서못할 죄상의 가지가지들 가슴 속에 단단히 명심하고 있었다.²⁹⁾

전체 작가 예술가에게 한 담화에서, 김일성은 우리 작가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작품에서 적에 대한 증오심을 옹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적을 어떻게 묘사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쟁 기간에 도시와 농촌을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잿더미로 만들었고 인민들을 학살했던 것에서 보듯,³⁰⁾ 그는 ‘교활할 뿐만 아니라 가장 포악하고 추악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미제국주의자에 대해 묘사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그대로 보인다 하여 그것이 곧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증오심을 더 고취시키지

28) 한철야, 「해방담 - 장편 『대동강』의 제2부」, 『조선문학』 1-3, 1953. 12, 19면.

29) 리북명, 「조선의 딸(2)」, 『문학예술』 5-11, 1952. 11, 28면.

30) 북조선에서 있었던 ‘대중학살사건’에 대한 것은 『미제와 리승만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조국전선조사위원회보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나 『조선에서의 미국침략자들의 만행에 관한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자연주의적 수법'을 경계한다. 이리하듯 한설야의 「승냥이」나 리복명의 「악마」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그대로 그리는 수법을 경계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김일성의 담화 이후 발표된 위의 리복명의 「조선의 딸」이나 한설야의 『대동강』에서 보여주듯, 미제국주의자들을 '악마'로 묘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변한 것은 물론 아니다. 즉, 사실과 과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뒤섞여 재해석된 미군이 '악마'라는 사실은 북조선 문학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³¹⁾ 또한 조선인민군과 같은 '선한' 편과 미군과 같은 '악한' 편을 선악 이분법에 따라 묘사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보니 정 반대의 두 세계가 어느덧 머리에 떠올랐다. 총창과 탄약을 들고 불타고 파괴되고 나자빠지는 것을 보고 장쾌하다고 너털웃음을 치는 자들의 세계와 피와 땀으로 새것을 만들어내고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파괴자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이 두 세계를 접순은 방불히 보고 있었다.³²⁾

이런 원칙에 따라 북조선 문학을 형상화함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한설야의 『대동강』(3부작: 「대동강」, 「해방담」, 「룡악산」)은 1950년 10월 하순경부터 1951년 초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미군 점령 전후 평양에 남은 점순, 상락 등의 인쇄 노동자의 성장과 투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해방기 조미관계사의 재조정³³⁾에 따라 설정된 '민주'진영과 '반민주'진영에 대한 상반

31) 이런 사실은 이북문학사의 다음 진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작품에서 보여진 원수놈들의 만행은 문'자 그대로 악마이다. 이 놈들은 심지어 사람의 코를 꿰어 우마처럼 끌고 다녔다. (……) 작품에서는 또한 미제의 주구인 왜놈 요시다라던가 민족 반역자인 허 만세, 구 명호 등의 비렬하고 추악한 모습들도 폭로함으로써 더욱 뚜렷이 미제의 추악한 야만적인 존재를 폭로 규탄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 문학 통사(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239면)

32) 한설야, 「룡악산(二) - 장편 「대동강」 제삼부」, 『조선문학』, 1954. 12, 46면.

33)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한설야도, 해방기의 조미관계사를 재조정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소급하듯, '서면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미제'에 대한 극단적 반미관을 표현한다. “일찍 해적의 배포로 대동강을 타고 온 미국 군함 사만호를 활불로 그 물

된 평가는 미군의 평양 점령 전후의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된다. 이 작품은 ‘총창과 탄약을 들고 불타고 파괴되고 나자빠지는 것을 보고 장쾌하다고 너털웃음을 치는 자들의 세계’와 ‘피와 땀으로 새것을 만들어내고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파괴자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선명한 선악 이분법에 입각하여 보여준다. ‘판연히 다른 두 개의 정권 밑에서 가지가지의 달고 쓴 맛을 보아온 그들이니 만큼 그들은 어느 제도가 좋고 어느 제도가 나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³⁴⁾는 식의 이야기는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이런 두 제도나 세계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서 작가들은 북조선 사회, 즉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이런 체제 정당성의 논리는 ‘고상한 애국주의’³⁵⁾로 말해지는 내셔널리즘을 호명한다.

조국회는 조국에 바친 자기의 청춘을 자랑하듯이 버젓하게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펴고 바사삭 바사삭 눈을 밝으면서 고요한 심경으로 나간다.

그는 주검이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외로움도 몰랐다. 경애하는 수령과 조선 로동당이 건재하고 고상한 애국주의와 백전백승의 선진 사상으로 교양받은 동지들과 인민군대가 있지않은가!

자기의 뒤를 이어줄 수백만의 조선의 딸들이 민주녀성의 깃발 아래에 뭉쳐있고 수천만의 참된 세계의 량심들이 끊임없는 원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지 않는가!³⁶⁾

리북명의 「조선의 딸」에서도 이런 내셔널리즘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속에 처박은 그 조상의 후손들이 오늘은 하늘의 날강도를 죽쳐 아름다운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것을 대동강은 보고 있는 것이다. (……) 완전히 두발 가진 짐승으로 나타난 미국놈들은 그에게 불타는 적개심과 투쟁심을 일으켜 주었다.” (한설야, 『대동강』, 동경: 재일본조선인교육자동맹문학부, 1952, 2~31면)

34) 李北鳴, 「惡魔」, 68면.

35)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 대전 방향에서 진격하는 인민군 부대들에게(一九五〇년 七月 二十三일)」, 『김일성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40면; 한설야, 「전국 작가 예술가 대회에서 진술한 한설야 위원장의 보고」, 『조선문학』 1, 1953. 10, 112면.

36) 리북명, 「조선의 딸(3)」, 『문학예술』 5-12, 1952. 12, 84면.

이 작품은 조옥희의 일생을 다루면서 전쟁 기간의 빨치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그린다.³⁷⁾ 조옥희는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대의 일시적 후퇴기에 은파산 인민유격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여기서 버젓하게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펴고 눈을 뻐으면서 견고 있는 조옥희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장면은 그녀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준다.³⁸⁾ 이 작품은 ‘어젯날의 농민’³⁹⁾인 평범한 한 여성의 일생을 통해서 영웅적 행동과 애국심을 이야기한다. ‘고상한 애국주의’로 말해지는 내셔널리즘의 논리는 북조선 체제가 요구했던 여성들의 유격대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⁰⁾ 여기서 한설야의 『대동강』이나 리북명의 「조선의 딸」에서 보듯, ‘미제’로 표상되는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애국주의’로 호명되는 내셔널리즘, 즉 ‘반제 내셔널리즘’은 북조선 문학의 익숙한 문법으로 정착된다.

-
- 37) 조옥희를 다룬 대표적 작품은 임순득의 소설 「趙玉嬉」(『문학예술』 4-3, 1951. 6)나 박팔양의 서정서사시 『황해의 노래』(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표지: 1957년, 판권지: 1958년 발행)), 박산운의 시 「침교천 언덕에서 - 조 옥희 영웅 돌격대에 드림」(『조선문학』 141, 1959. 5) 등이 있다.
- 38) 그러나 리원조의 영웅 형상화에 대한 비판에서 보듯, 조옥희의 일생은 노트에다가 그의 이력서와 전투 정형과 몇 가지 담화를 적은 것으로, 작품을 쓰는 ‘노트식 영웅제조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영웅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전투장면이나 영웅적 행동, 그 자체가 단순하며 비슷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 생활과 그들의 개성을 그린것이 이것 또한 친편일률적의 류형에 떨어진 것은 무슨 때문인가? 이것이 다름 아닌 노트식 영웅제조 방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작가, 예술가들이 영웅의 생활과 그의 사상 감정과 내면적 발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다만 노트에다가 그의 이력서와 전투정형과 몇가지의 담화를 적은 것으로써 작품을 쓰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단언할수 있는 것이다.”(리원조, 「영웅 형상화의 문제에 대하여」, 『인민』, 1952. 2, 128면.)
- 39) 김일성은 영웅의 형상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수다한 공화국 영웅들을 작품에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 / 그런데 영웅이라해서 반드시 신기한 사실,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작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창작적 태도로서는 우리의 영웅들을 옳게 묘사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젯날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또는 그들의 자제들입니다.”(김일성, 『김일성장군의 격려의 말씀(전체작가예술가들에게)』, 6면)
- 40)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서울: 경진, 2011, 263~272면.

3. ‘반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단상

해방기 일제에 입혔던 표상을 덧씌워져 재해석된 ‘미제’의 부정적 표상은 6·25전쟁동안 있었던 미군의 폭격과 학살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즉, 조선 해방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마저 부인한 극단적 반미관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고착되고 증폭되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금철 소년은 그 놈의 털미를 짚어 일켰다. 그리고 상자 밖에 떨어졌다. 그 때 금철은 보았다. 그 놈은 그 안에서 넋이 빠져 서류 위에 흠뻑 오줌을 갈겨놓고 있었다.

금철 소년은 그놈의 희승 희승한 대가리에 침을 탁 뱉었다.

그리고 털미를 잡아채며 끌고 나왔다. 왜놈은 그 때 말은 못하고 두 손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살려달라는 말이었다.

『악귀 같은 놈의 새끼! 주제에 죽기는 싫은 게로구나!』

금철 소년은 이 놈을 끌고 들로 나왔다. 그리하여 이리 저리 끌고 다녔으나 찾는 식물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금철 소년은 놈의 목아지를 제 손으로 잘르자는 것이었다.

금철 소년은 하는 수 없이 그 놈의 혀대를 끌러 놈의 목을 매어 끌고 다녔다. (……)

그러나 열 걸음도 못가서 그 놈은 뒤뚱하고 가슴을 그러안으며 꼬꾸라졌다. 금철 소년의 탄환이 두 방만에 그의 심장을 뚫렀던 것이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쫓아가던 금철 소년의 성난 발길이 그 놈의 대갈통을 거더쳤다. 그 놈의 대가리가 병사 바람벽을 철썩 드리받으며 두 눈같이 툭 뛰어나왔다.⁴¹⁾

현재 북조선에서 강조하는 것과 달리, ‘미제=승냥이, 악마’식의 주장은 해방기에 재발견된 제국주의론과 6·25전쟁기간에 있었던 학살의 경험이 결합하여,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만들어진 관념이다. 그런데 한설야나 리북명의 여러 작품에서 보듯, 이렇게 ‘악마’나 ‘승냥이’로 덧칠해진 미제에 대한 표상은

41) 한설야, 「력사(3)」, 『문학예술』 6-6, 1953. 6, 55~56면.

당연히 북조선에도 덧씩울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북조선과 반대로 남한에서는 ‘빨갱이’라는 익숙한 문법으로 북조선의 표상에 덧씩우듯이 말이다. ‘선한’ 편과 ‘악한’ 쪽에 대한 극단적인 형상화는 미(美)와 추(醜), 선(善)과 악(惡)의 이분법적 구도에 근거한 것인데, 선한 편의 행위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말할 근거란 어디에도 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처럼, ‘폭력’도 ‘내(북조선)가 하면 선, 남(미제)이 하면 악’이라 식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극단적 형태로 재발견한 반미관은, ‘미제’가 했던 것과 유사한, 어린 유격대 대원 금철이 ‘왜놈’에게 행한 ‘복수(폭력)’와 같이, 스스로 거부했던 동일한 폭력 안에 간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제 내셔널리즘 형태로 진행된 반미관은 끔찍한 만행에 대한 또다른 끔찍한 보복 외에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다. 북조선 문학이 구사하는 익숙한 문법인 폭력과 복수의 고리 안에서, 북조선이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제국주의의 마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여하튼, “나(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남’을 말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 속에서 폭력과 복수의 고리를 벗어날 그 어떤 출구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 참 고 문 헌

- 『미제와 리승만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조국전선조사위원회보도)』,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1.
- 『조선에서의 미국침략자들의 만행에 관한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조선인민은 도살자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야수적만행에 복수하리라』, 평양: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출판년도 불명(1950 - 추정).
- 강정구,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21, 1993. 여름.
-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63, 2007. 6.
- _____, 「한국전쟁기 소련의 유엔 불출석과 ‘드러나지 않은’ 개입」, 『중소연구』 34-3,

2010. 가을.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6(개정판).
- 김영수, 「북한의 대미 인식」, 『현대북한연구』 6-2, 2003. 12.
- 김윤식, 「북한문학의 세가지 직접성 - 한설야의 「혈로」 「모자」 「승냥이」 분석」, 『예술과 비평』 21, 1990. 가을.
- 김일성,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 『인민』 5-7, 1950. 7.
- 金日成, 「全體作家藝術家들에게주신金日成將軍의激勵의말씀」, 『문학예술』 4-3, 1951. 6.
- 김일성, 『김일성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_____, 『김일성장군의 격려의 말씀』, 평양: 문화선진성, 1951.
- _____, 『김일성저작집(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재웅, 「북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된 미국의 상(1945~1950)」, 『한국사학보』 37, 2009. 11.
- 김중희, 「북한문학에 나타난 6·25동란」, 『한민족어문학』 49, 2006. 12.
- 김주환(편),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서울: 청사, 1989.
- 김진계(구술), 김응교(기록), 『조국(상)』, 서울: 현장문학사, 1990.
- 김춘선, 「염상섭의 『취우』와 한설야의 『대동강』 비교」, 『현대문학의 연구』 38, 2009. 6.
- 남원진, 「미국의 두 표상 - 해방기 북조선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문에 비평연구』 36, 2011. 12.
- _____,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서울: 경진, 2011.
- 리복명, 「조선의 딸(1~3)」, 『문학예술』 5-10, 5-11, 5-12, 1952. 10~12.
- 리원조, 「영웅 형상화의 문제에 대하여」, 『인민』, 1952. 2.
- 박산운, 「침교천 언덕에서」, 『조선문학』 141, 1959. 5.
- 박팔양, 『황해의 노래』,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 신영덕, 「전쟁과 문학 -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에 나타난 외국인과 여성」, 『전쟁과 문학』 2, 2007. 여름.
- _____,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과 미군·중국군의 형상화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0, 2003. 6.
- _____, 「한국전쟁기 남북한 전쟁소설의 특성 - 한국군과 북한군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3. 12.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서울: 평민사, 2000.
- 李北鳴, 「惡魔」, 『문학예술』 4-1, 1951. 4.
- 이신철, 「6·25 남북전쟁시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역사와 현실』 54, 2004. 12.
- 이주철, 「북한의 정부 수립과 열강에 대한 인식 - 『정로』·『로동신문』·『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충』 67, 2008. 9.
- 임순득, 「趙玉嬉」, 『문학예술』 4-3, 1951. 6.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번각 발행: 학우서방, 1973)
- 한설야, 「『승냥이』를 쓰기까지」, 『청년생활』, 1951. 10.
- _____, 「력사(3)」, 『문학예술』 6-6, 1953. 6.
- _____, 「룡악산(1~2)」, 『조선문학』, 1954. 11~12.
- _____, 「승냥이」, 『문학예술』 4-1, 1951. 4.
- _____, 「전국 작가 예술가 대회에서 진술한 한설야 위원장의 보고」, 『조선문학』 1, 1953. 10.
- _____, 「해방탑」, 『조선문학』 1-3, 1953. 12.
- _____, 『대동강』, 동경: 재일본조선인교육자동맹문학부, 1952.
-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차성수·양동주(역), 서울: 태암, 1989.
- HALLIDAY, J., CUMMINGS, B., *Korea :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Press, 1988.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북조선』, 서동만·남기정(역), 서울: 돌베개, 2002.

❖ ABSTRACT

American imperialism and Korean wolf
- A Study on the Anti-American Viewpoint
in the Period of 'the Homeland Liberation War'

Nam, Wonjin

The negative symbol of 'American imperialism', which was reinterpreted superimposed on the symbol imposed on Japanese imperialism in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was more amplified added by the experiences of the bombing and massacre by US troops during the Korean War. In other words, the symbol of the extreme 'American imperialism' in the liberation in which even the role of America contributing to the liberation of Josun had been denied had continued for a long time adhered to and amplified through the war. Thus, unlike the current emphasis laid by North Josun, the assertion in the form of 'American imperialism=Korean wolf' is an idea made from the mixture of fact and fiction combined with the theory of imperialism rediscovered in the liberation and the experience of massacre during the Korean War. And this superimposed symbol for American imperialism naturally causes the problem of being superimposed also on the symbol of North Josun. And the extreme formalization for 'good' and 'bad' sides was based on the dichotomous compositions of beauty and ugliness, good and evil. The ground for saying that an act by a good side is 'unconditionally' legitimate is nowhere found. The anti-American viewpoint rediscovered in such an extreme form results in one aspect of criticism and resemblance as a result of being locked up in the same violence which one has rejected by oneself. The anti-American viewpoint going on in the form of anti-imperialist nationalism leaves nothing except another terrible retaliation for terrible brutality. It is self-evident that one can never get out of the enchanting power of imperialism which North Josun has continuously criticized in a ring of violence and vengeance, the familiar grammar commanded by North Josun literature.

Key Words

북조선 문학, 조국해방전쟁, 미국, 미제, 반미관, 한설야, 리북명

Literature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Josun Literature), the Homeland Liberation Wa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n imperialism, an anti-United States (of America) viewpoint, Han Seolya, Lee Bukmyeong

논문접수일: 2011. 10. 25.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